제2020-21호 2020. 10. 16.

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

국제경제리뷰

조사국 국제종합팀
박병걸 차장(4280),
오강현 과장(4259),
김하은 조사역(4279),
안준영 조사역(5233)

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

◆ **(검토배경)** 글로벌 경기는 5월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상황이 당초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*

* IMF, OECD 등 주요 전망기관은 선진국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반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하향조정

⇒ 주요국*을 대상으로 경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을 점검해보고 글로벌 경기 향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

* G20에 태국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필리핀 및 스페인을 추가하여 전체 25개국

◆ **(글로벌 경제상황 개관)** 주요국 GDP성장률은 2/4분기중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급락한 가운데 미국과 유로지역이 예상보다는 양호하였으며, 3/4분기에는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상당폭 반등 예상

○ 다만 최근 들어 전체적인 회복속도는 완만해지는 모습이며, 국가군별로 선진국은 예상보다 침체 폭이 깊지 않고 개선속도도 빠르나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은 부진 정도가 큰 편

◆ **(최근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)** 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되었던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이 발견

①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

○ 주요국 정책지원이 강화된 데다 자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된 것이 크게 영향

⇒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심리 완화,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상품소비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② 서비스소비는 전세계적으로 부진을 지속

○ 서비스소비는 여행, 외식, 문화 등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감염상황, 이동제한 조치 등에 민감히 반응

⇒ 백신·치료제 등의 개발·보급 전까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③ 기업투자 회복도 지연

○ 산업생산 부진, 코로나19 관련 높은 불확실성 등에 기인

⇒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비IT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

④ 최근 수출은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개선 조짐

▪ 반면 상품수입은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빠르게 개선

○ 신흥국의 수출은 주요국의 소비회복과 함께 소비재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수출은 기업투자 부진으로 회복이 지연

▪ 또한 중국,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에는 ICT 제품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음

⇒ 상품소비 회복에 따른 소비재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겠으나 글로벌 교역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자본재 교역*의 회복이 필요

* 자본재 생산 및 교역은 변동성이 커서 경기침체기에 글로벌 생산 및 교역 회복을 크게 제약하는 경향

◆ **(향후 전망)** 향후 글로벌 경기는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겠으나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전까지는 최근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

○ 최근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회복과 중국의 투자확대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부진이 완화

▪ 이는 對중국 수출 또는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의 수출 개선에도 기여

○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비스소비 부진 지속 등으로 고용과 소득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를 견인할 수 있는 투자와 교역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기 어려운 상황

⇒ 3/4분기 세계경제성장률(전기대비 기준)은 상당폭 반등하겠지만 4/4분기에 들어서면서 개선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

목 차

Ⅰ. 검토 배경 ····· 3

Ⅱ.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 개관 ····· 4

Ⅲ. 최근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 ···· 6

Ⅳ. 향후 전망 ····· 15

Ⅰ 검토 배경

□ 글로벌 경기는 경제활동이 재개된 5월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

○ OECD 경기선행지수, 글로벌 PMI 등 주요 경기지표는 꾸준한 상승세 시현

□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개선세가 주춤한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상황이 당초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

○ 미국 등 선진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반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은 회복이 더딤

▪ 선진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충격이 클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상이하게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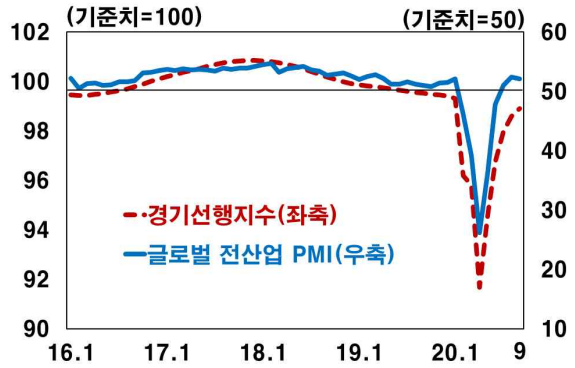
○ 이에 따라 주요 전망기관은 선진국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반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하향조정*

* <참고> 「주요 전망기관의 성장전망」 참조

⇒ 주요국*을 대상으로 경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을 점검해보고 글로벌 경기 향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

* G20에 태국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필리핀 및 스페인을 추가하여 전체 25개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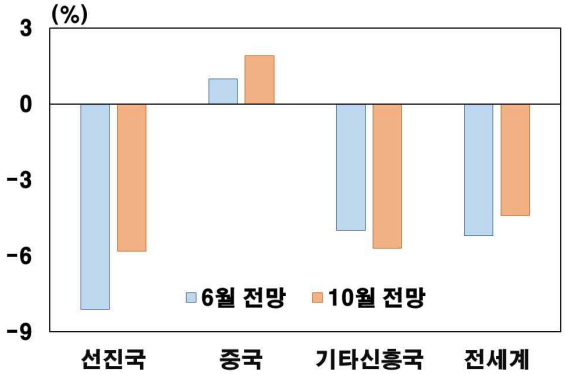
글로벌 PMI 및 경기선행지수[1)]



주: 1) 경기선행지수는 OECD 회원국 및 6개 신흥국(중국, 브라질, 인도, 러시아, 인도네시아, 남아공) 기준

자료: JP Morgan, OECD

IMF의 2020년 세계경제전망



자료: IMF

Ⅱ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 개관

◆ 주요국 GDP성장률은 2/4분기중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급락한 가운데 미국과 유로지역이 예상보다는 양호하였으며 3/4분기에는 소매판매를 중심으로 한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상당폭 반등 예상

◆ 국가군별로 선진국은 예상보다 침체 폭이 깊지 않고 개선속도도 빠르나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은 부진 정도가 큰 편

□ 글로벌 경제는 지난 2/4분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극심한 침체를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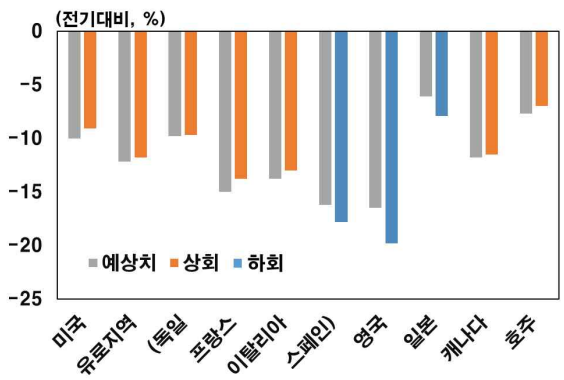
○ 미국과 유로지역 성장률(전기대비)은 각각 -9.0%, -11.8%로 통계편제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으나 예상(-10.0%, -12.2%, 6월 Bloomberg 서베이 기준)보다는 양호

○ 신흥국의 경우 인도가 전년동기대비 -23.9%로 예상(-18.9%)을 하회하는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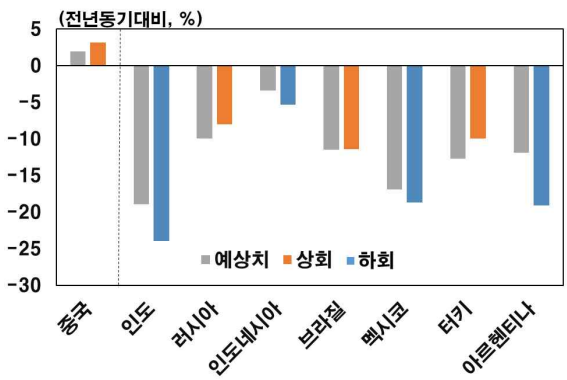
▪ 러시아(-8.0%), 터키(-9.9%) 등이 예상을 소폭 상회하였으나 아르헨티나(-19.1%), 멕시코(-18.7%), 인도네시아(-5.3%) 등은 하회

주요국 GDP성장률[1)2)]

(선진국)



(신흥국)



주: 1) 2020.2/4분기 기준
2) 예상치는 Bloomberg 서베이 6월 기준
자료: Bloomberg

□ 주요국 경제는 5월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3/4분기 성장률(전기대비 기준)은 상당폭 반등한 것으로 추정

○ 소매판매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6월을 지나면서 코로나19 이전(2019년 12월) 수준에 근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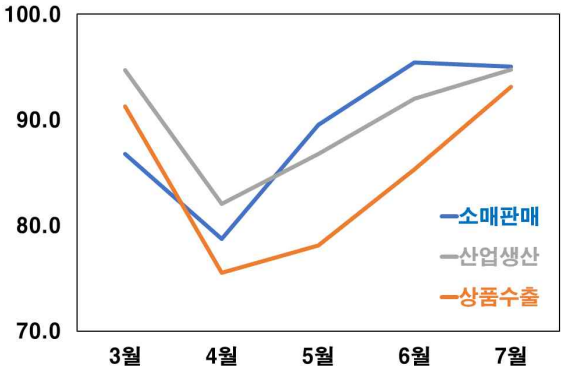
▪ 선진국은 6월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신흥국은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

○ 산업생산과 상품수출은 소매판매에 비해서는 다소 더딘 편이지만 개선세가 지속

▪ 중국이 감염 확산을 조기에 통제하고 생산 및 수출위주로 경제활동을 빠르게 재가동하면서 회복을 견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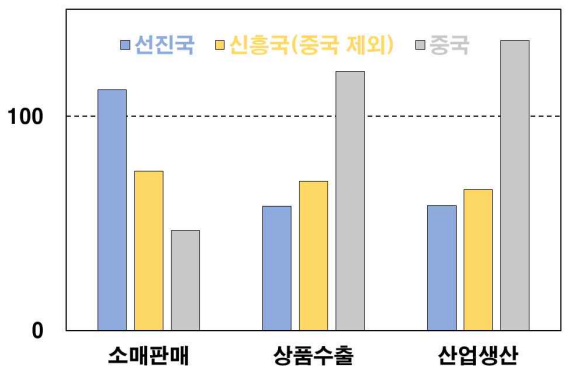
□ 한편 최근 들어 주요국의 수출 개선세가 빨라지고는 있으나 소비 회복이 다소 주춤하며 전체적인 회복속도는 완만해지는 모습

소매판매, 상품수출 및 산업생산[1)]



주: 1) 2019.12월=100, 조사대상국가의 GDP (구매력평가기준) 비중으로 가중 평균
자료: CEIC

선진국과 신흥국간 회복률 비교[1)]



주: 1) 회복률=(20.7월-최저점)/(19.12월-최저점)*100)
자료: CEIC

Ⅲ 최근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

◆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이 발견

①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

② 서비스소비는 전세계적으로 부진을 지속

③ 기업투자 회복도 지연

④ 최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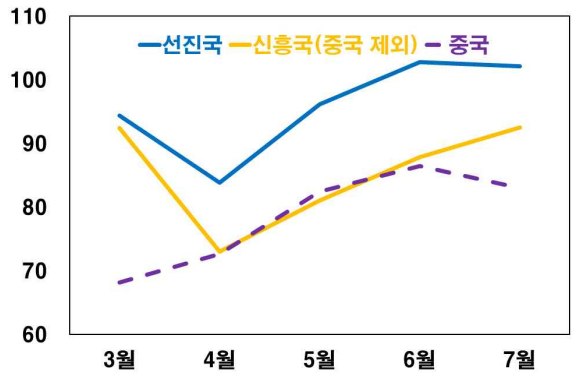
1.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

□ 상품소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기개선을 견인

○ 선진국 소매판매가 6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신흥국도 완만하나마 개선세를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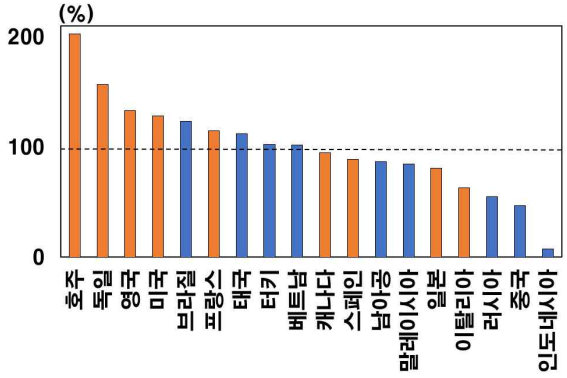
▪ 국가별로는 호주, 독일, 영국 및 미국은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인도네시아, 러시아, 이탈리아, 일본 등은 더딘 편

선진국 및 신흥국 소매판매[1)]



주: 1) 19.12월=100, 조사대상국가의 GDP(구매력평가기준) 비중으로 가중 평균
자료: CEIC

주요국 소매판매 회복률[1)]



주: 1) (20.7월-최저점)/(19.12월-최저점)*100
자료: CEIC

□ 이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은 주요국 정책지원이 강화된 데다 자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된 것이 크게 영향

① (정책지원 확대) 주요국 정부*가 실업대책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충격을 완화

* 정부지출확대 및 감세 규모(%, GDP 대비): 선진국 8.9, 신흥국 3.1 (IMF, 6월)

▪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부양법안(CARES 법안)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*을 크게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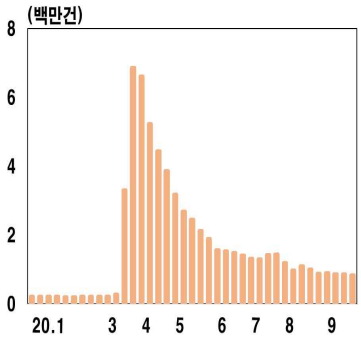
*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(26주→39주), 지급금액 증액(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 추가 지급), 지급대상 확대(프리랜서, 독립형 계약 근로자 등 지원)

▪ 유로지역과 영국은 단축근로 활성화 조치* 등을 통해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

* 고용주 부담 경감(사회보험료 감면,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, 신청절차 간소화 등), 지원규모 확대(수당 증액, 지급기간 연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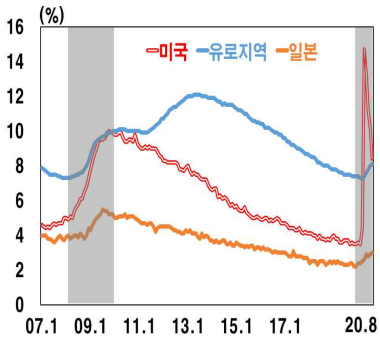
▪ 미국,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

미국 실업급여 신규 청구건수



자료: 미 노동부

주요국 실업률



자료: FRED, Eurostat, 일본총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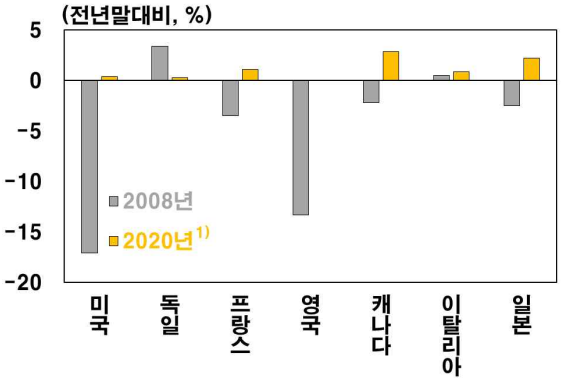
주요국 긴급재난지원금

	주요 내용
미국	- 소득기준 90% 성인 1,200달러, 아동 500달러
독일	- 아동수당 300유로
일본	- 전 국민 10만엔
홍콩	- 성인 1만홍콩달러
싱가포르	- 자산/소득별 차등지급

② (자산가격 안정) 신속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금융위기*와 달리 주택가격, 주가 등 자산가격이 안정된 점도 부(富)의 급감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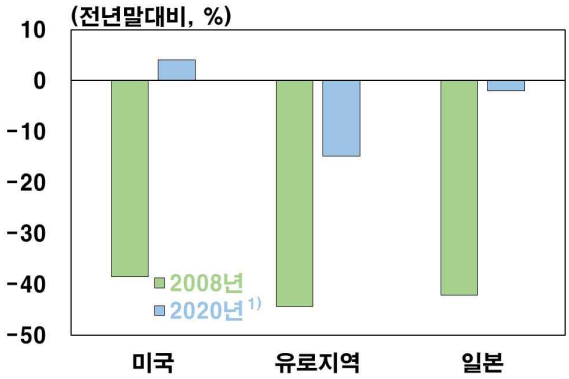
* 모기지론 부도와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으로 선진국 민간소비가 감소(선진국 민간소비 증감률 : 07년 2.3% → 08년 0.1% → 09년 -1.0%)

G7 국가의 주택가격



주: 1) 2020.1~6월중 기준
자료: BIS

미국, 유로지역, 일본 주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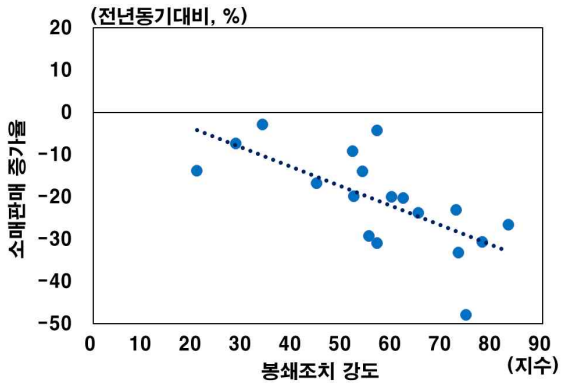
주: 1) 2020.1~9월중 기준
자료: Bloomberg

③ (비대면 소비 활성화)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확산도 상품소비 회복에 긍정적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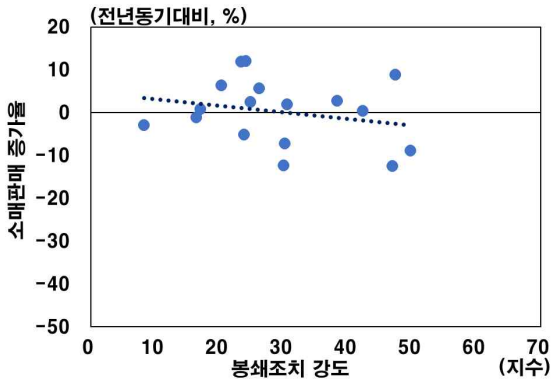
▪ 4월중 국가별 소매판매와 이동제한 조치 간에는 뚜렷한 역(-)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7월 중에는 가계 소비심리 안정 등으로 동 관계가 크게 약화

이동제한조치와 소매판매

(4월)



(7월)



자료: Bloomberg, Goldman Sachs

⇒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심리 완화,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앞으로도 상품소비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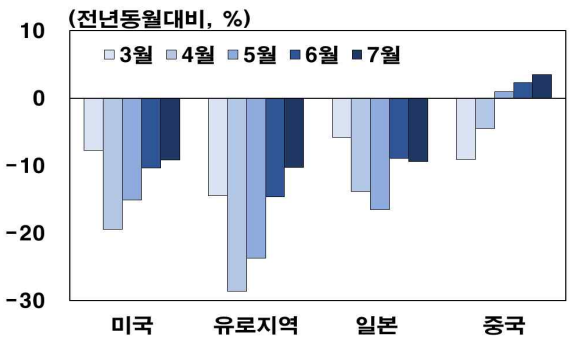
2.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서비스소비 제약은 지속

□ 서비스소비는 대외활동 제약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개선세가 주춤한 모습

○ 7월 들어서도 주요국 서비스소비 관련지표는 전년동기대비 10% 정도 감소한 수준에서 횡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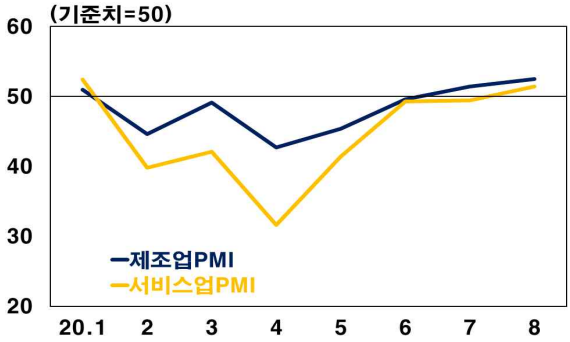
○ 신흥국 서비스업 PMI는 8월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(50)를 상회

주요국 서비스소비 관련지표[1)]



주: 1) 미국은 서비스 지출, 유로지역 및 중국은 서비스업 생산지수, 일본은 3차산업활동지수
자료: BEA, 각국 통계청

신흥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



자료: IHS Marki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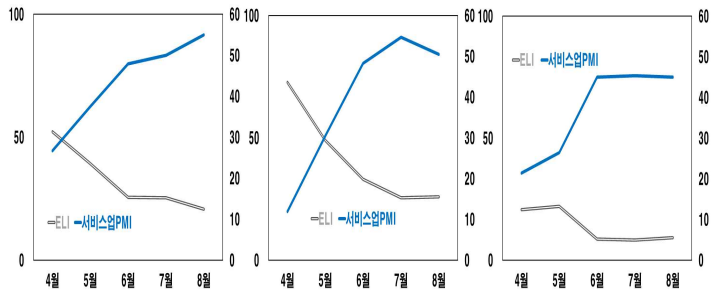
□ 서비스소비는 여행, 외식, 문화 등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감염상황, 이동제한 조치 등에 민감히 반응

○ 주요국 서비스소비는 5월중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개선 조짐을 보였으나 6월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선흐름이 이어지지 못함

▪ 8월 이후 전세계 확진자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동제한 조치의 추가 완화가 지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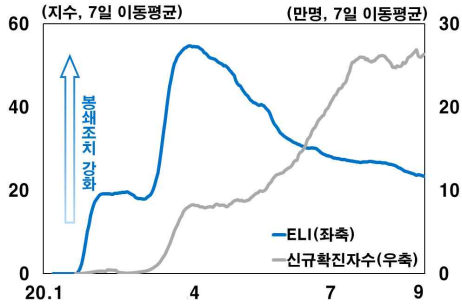
주요국 서비스업 PMI와 이동제한 강도

(미국) (유로지역[1)]) (일본)



주: 1) 유로지역 ELI는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평균
자료: IHS Markit, Goldman Sachs

전세계 확진자수와 이동제한 강도



자료: Goldman Sachs, Worldometer

□ 특히 해외여행*은 각국의 출입국 통제, 보건규범 강화 등으로 단기간내 재개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상당히 지연될 전망

* OECD 국가 관광산업의 해외관광객 의존도는 25% 정도(OECD, 2020.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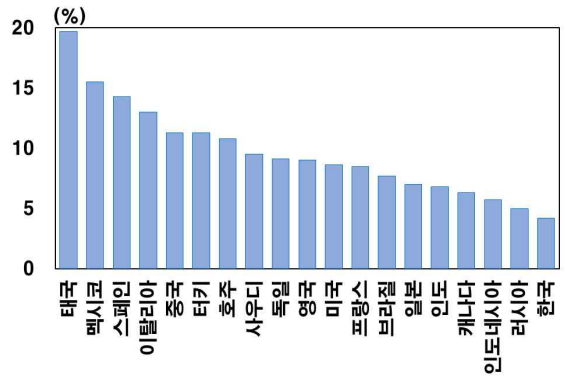
○ 스페인, 이탈리아, 멕시코 등이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아 2020~21년 성장이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

▪ 태국,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경우 2020년중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수지 악화가 GDP의 4~6%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(IMF, 2020 External Sector Report)

► 코로나19의 경상수지 영향	태국	그리스	포르투갈	스페인	터키
- 관광산업 외국인지출 비중	71%	68%	70%	56%	64%
- 경상수지 영향(GDP대비)	6%	6%	4%	3%	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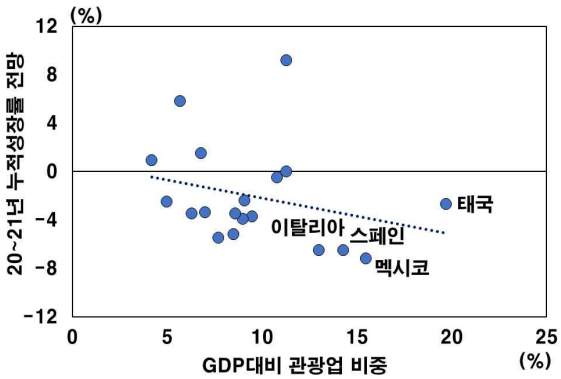
자료: IMF,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

관광산업 비중[1)]



주: GDP 대비
자료: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

관광산업 비중과 성장전망간 관계



자료: IMF,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

⇒ 백신 및 치료제 등의 개발 및 보급 전까지 서비스소비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○ 서비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서비스소비 부진 지속은 가계소득 회복을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

3. 기업투자 회복의 지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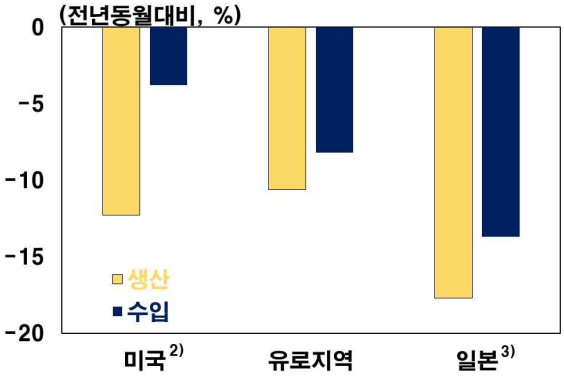
□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 기업투자는 비IT 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

○ 주요국 자본재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% 이상 감소한 가운데 자본재 수입도 상당폭 감소

○ 자본재 수주는 미국*은 전년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큰 폭의 감소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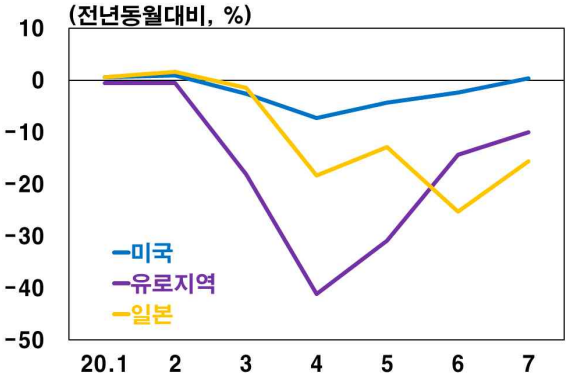
* 미국 비방위자본재 수주는 컴퓨터, 전자제품 등의 증가로 7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

주요국 자본재 생산 및 수입[1)]



주: 1) 7월 기준. 단, 유로지역 수입은 6월 기준
2) 미국 생산은 민간설비 기준
3) 일본 수입은 일반기계 기준
자료: 각국 통계청

주요국 자본재 수주[1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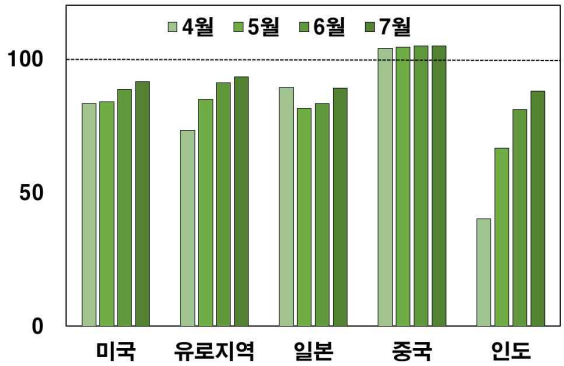
주: 1) 미국은 비방위자본재(항공기 제외), 일본은 민간기계수주액(선박, 전력 제외) 기준
자료: 각국 통계청

□ 기업투자 부진은 산업생산 부진, 코로나19 관련 높은 불확실성 등에 기인

○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산업생산이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10%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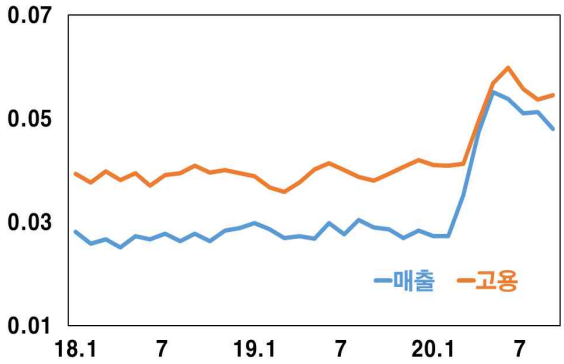
○ 미국 기업의 매출과 고용 관련 불확실성 인식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

주요국 산업생산



주: 1) 19.12월=100
자료: CEIC

매출 및 고용 관련 불확실성[1)]



주: 1) 미국 기업에 대한 서베이를 토대로 미래 4분기 간의 전망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지수화(Survey of Business Uncertainty)
자료: 미연준, 시카고대, 스탠포드대

⇒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비IT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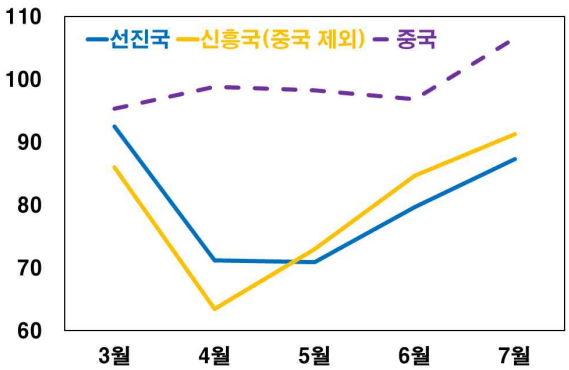
4. 최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

□ 수출은 중국, 아세안 등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

○ 일본, 유로지역 등 선진국 수출은 신흥국에 비해 회복이 더딘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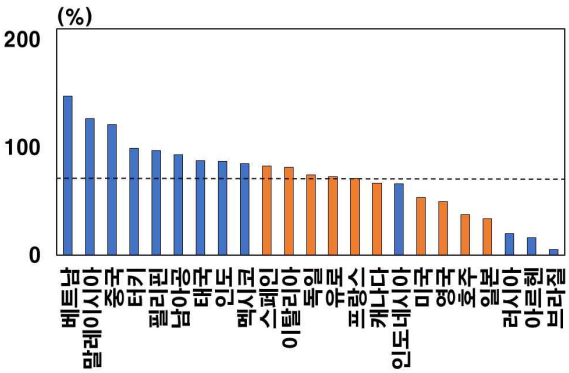
▪ 러시아, 브라질 등 자원부국의 경우 국제유가 회복지연 등으로 7월까지 수출 부진이 지속

선진국 및 신흥국 상품수출[1)]



주: 1) 19.12월=100, 조사대상국가의 GDP(구매력평가기준) 비중으로 가중 평균
자료: CEIC

주요국 수출 회복률[1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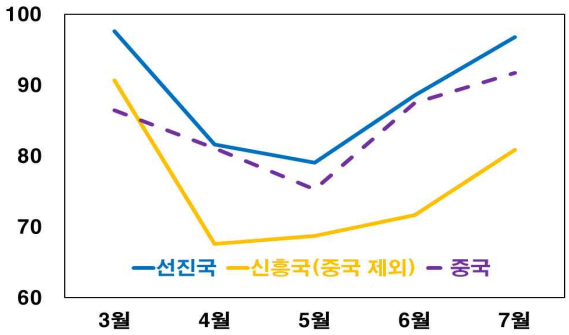


주: 1) (20.7월-최저점)/(19.12월-최저점)*100
자료: CEIC

○ 이는 상품수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과 대응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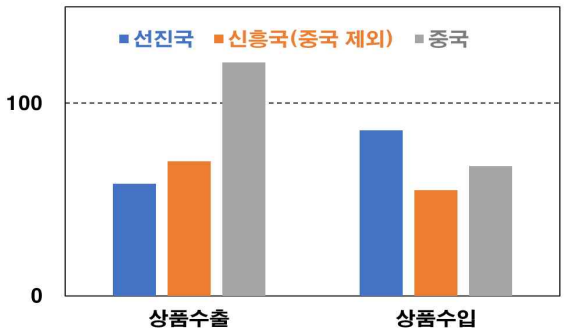
▪ 선진국이 상품소비 회복으로 수입이 늘면서 중국과 여타 신흥국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개선

선진국 및 신흥국 상품수입[1)]



주: 1) 19.12월=100, 조사대상국가의 GDP (구매력평가기준) 비중으로 가중 평균
자료: CEIC

선진국 및 신흥국 교역 회복률[1)]



주: 1) (20.7월-최저점)/(19.12월-최저점)*100
자료: CEIC

□ 이러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별화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ICT제품 비중 등 수출구조 차이에 영향

① (ICT 제품 비중) 중국,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에는 ICT 제품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음

▪ 재택근무 확산, 디지털서비스 이용 증대 등으로 컴퓨터, 가전, 반도체 등 ICT 제품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 시현

▪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경우 전세계 수입의 64.9%(2018년 기준)를 미국 및 유럽국가가 전세계 수출의 60.5%를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차지*

*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ICT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된 데 기인

(전년동월대비[1)], %)	중국	말레이시아	베트남
► 상품수출 증가율	9.5	0.2	7.1
► ICT제품[2)] 증가율	14.0	9.2	7.3
► ICT제품[2)] 비중(%)	35.0	42.7	34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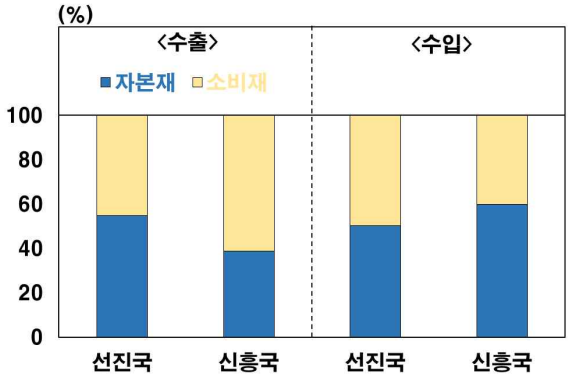
주: 1) 중국·베트남은 8월, 말레이시아는 7월 기준
2)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사무장비, 데이터처리장치, 통신음향기기, 베트남은 컴퓨터, 전자제품·부품, 통신기기 기준
자료: CEIC

② (소비재 비중) 신흥국 수출은 소비회복과 함께 소비재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 수출은 기업투자 부진으로 회복이 지연

- 선진국은 자본재, 신흥국은 소비재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자본재와 소비재 간 회복세 차이가 수출 회복세 차이를 유발
- 한편 자본재 생산 및 교역은 변동성이 커서 경기침체기에 글로벌 생산 및 교역 회복을 크게 제약하는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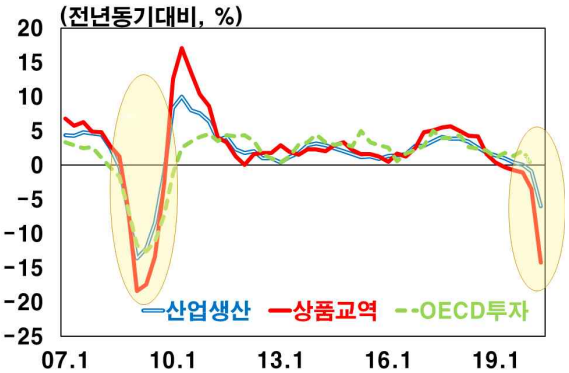
⇒ 상품소비 회복에 따른 소비재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겠으나 글로벌 교역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자본재 회복이 필요

선진국과 신흥국의 교역 구조[1)]



주: 1) 2019년 기준, 연료, 산업용 재료, 수송장비 제외
자료: UN Comtrade

글로벌 산업생산과 교역 및 투자



자료: CPB, OECD

Ⅳ 향후 전망

□ 최근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회복과 중국의 투자확대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

○ 중국이 조기에 감염 확산을 통제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선진국도 2/4분기 실적이 당초 우려보다는 양호한데 기인

▪ 이는 對중국 수출 또는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수출 개선에도 기여

○ 소비, 수출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가 5월 이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어 3/4분기 성장률(전기대비 기준)은 상당폭 반등 예상

○ 다만 최근 들어 소비 회복이 다소 주춤하며 전체적인 회복속도가 둔화되는 조짐

□ 향후 글로벌 경기는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겠으나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전까지는 최근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

○ 서비스소비는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백신 및 치료제 등의 개발·보급 전까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○ 기업투자도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비IT부문을 중심으로 한 부진이 이어질 전망

○ 글로벌 교역상황은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개선 조짐이 있으나 이 회복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재교역의 회복이 필요

⇒ 세계경제성장률(전기대비 기준)은 3/4분기에는 예상대로 상당폭 반등하겠지만 4/4분기에 들어서면서 개선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

<참고>

주요 전망기관의 성장전망

□ IMF, OECD 등 주요 전망기관은 최근 발표된 수정전망에서 선진국과 중국의 성장 전망은 상향 조정하고 여타 신흥국은 하향 조정

○ **(선진국)** 지난 6월 전망에서 2020년 7~8%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였으나 최근에는 -6% 이내로 1~2%p 상향 조정

▪ 이러한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중에도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전망

○ **(신흥국)** 중국은 당초 금년 -2~1%에서 2% 전후로 상향 조정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여타 신흥국은 마이너스 성장세 확대(-5% → -8~-6%)

▪ 중국은 금년 2/4분기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여타 신흥국은 당초 2021년 말경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수정전망에 따르면 2021년까지 어려울 전망

○ **(전세계)** 신흥국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침체가 덜하고 중국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6월 전망대비 1%p 내외 상향 조정

▪ 당초 전망에서는 2021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으나 수정전망에서는 2021년 말경 도달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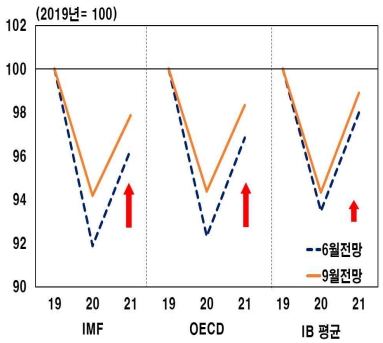
주요 전망기관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 조정[1)]

	선진국	중국	기타신흥국	전세계
IMF	-8.1 → -5.8	1.0 → 1.9	-5.0 → -5.7	-5.2 → -4.4
OECD[2)]	-7.7 → -5.6	-2.6 → 1.8	-5.3 → -8.0	-6.0 → -4.5
주요IB	-6.5 → -5.7	2.0 → 2.4	-3.4 → -4.7	-3.7 → -3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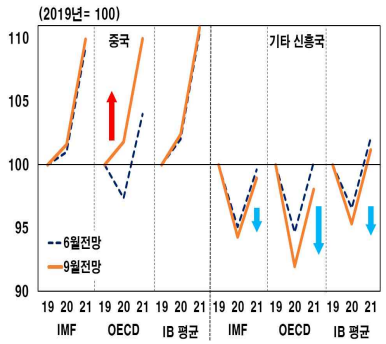
주: 1) 기존 전망은 6월 전망 기준
2) 선진국 및 기타신흥국은 G20 국가를 대상으로 추산

실질 GDP 전망경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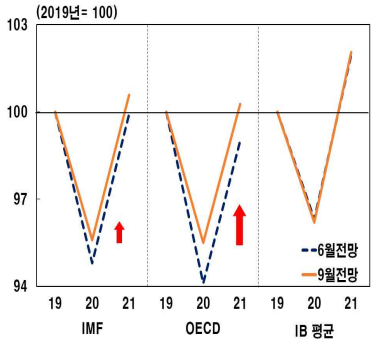
(선진국)



(신흥국)



(전 세계)



자료: IMF, OECD, 주요 IB

《참고자료》

곽법준 · 이규환 · 곽윤영 · 강보민 · 오강현, “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 대책 현황 및 평가”, 한국은행, 2020.9월

박병걸 · 노민재, “세계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”, 한국은행, 2020.4월

박성욱, “주요국의 코로나 위기 대응 경제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”, 금융연구원, 2020.7월

IMF, “2020 External Sector Report: Global Imbalances and the COVID-19 Crisis”, Aug. 2020

____, “World Economic Outlook”, Oct. 2020

____, “Fiscal Monitor”, Oct. 2020

OECD, “Tourism Policy Responses to the coronavirus”, Jun. 2020

____, “OECD Economic Outlook, Interim Report”, Sep. 2020

World Travel & Tourism Council, “The Future of Travel & Tourism in the wake of COVID-19”, Sep. 2020

UNCTAD, “World Investment Report”, May 2020